

# 87년 세계 석유생산 실적과 전망

## 1. 머리말

87년말 세계原油생산실적은 共產圈의 기록적인 생산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中共과 소련의 괄목할 만한 생산증가가 OPEC의 생산감소를 상쇄하였기 때문에 87년 세계原油생산량은 55.954백만b/d로 86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생산량은 86년의 18.074백만b/d에서 15%인 273천b/d가 감소하였다. 87년 共產圈의 생산량은 15.621백만b/d로 전년대비 274천b/d가 증가하였다. 공산권의 86년 생산량은 15.347백만b/d, 85년 생산량은 14.849백만b/d였다.

## 2. 소련의 생산실적

87년 소련의 생산실적은 12.48백만b/d로 정부가 계획했던 12.34백만b/d보다 140천b/d를 초과했다. 소련은 과거 8년 연속으로 정부생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해, 소련의 原油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5월에 12.7백만b/d로 피크를 이루었다가, 11월에 12.4백만b/d로 감소하였고 12월에 다시 증가하였다.

88년 1월에는 생산량이 거의 12.53백만b/d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의 12.39백만b/d보다 140천b/d가 증가한 양이다.

소련의 87년 原油생산의 증가로 인해 동국 정부의 90

년 생산목표도 평균 12.5~12.8백만b/d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88~90년 기간의 原油 및 콘덴세이트 생산 증가량은 86~87 기간보다는 낮을 것이다. 소련의 石油생산증가분 중 대부분은 콘덴세이트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소련原油 및 콘덴세이트의 거의 3분의2를 생산하고 있는 서부 시베리아는 87년에도 다시 동국 생산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3. 中共의 생산실적

中共의 87년 原油생산실적은 85년 2.5백만b/d, 86년의 2.62백만b/d에서 2.7백만b/d로 증가하였다, 최근 세계原油 생산통계를 위해 여러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中共 石油部가 발표한 수치와 비슷하다.

中共 북동지역에 있는 大慶유전은 12년째 1백만b/d 이상의 原油를 생산해 오고 있다. 중공정부관리들은 최신기술의 도입으로 中共 최대 유전인 大慶 유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中共에서 두번째로 큰 勝利유전도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은 85년 541천b/d 86년 약 591천b/d에서 87년에는 630천b/d로 증가하였다. 中共은 동 유전의 생산량이 89년 800천b/d, 90년 1백만b/d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中共의 전체적인 생산목표는 90년 3백만b/d, 2000년 6백만b/d로 되어 있다.

#### 4. 기타 共産圈 생산실적

공산권 생산 중 루마니아의 비중은 86년 黑海 유전의 생산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2년째 공식적인 原油생산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87년 생산실적은 86년의 추정실적인 215천b/d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쿠바의 87년 생산실적은 기록적인 20천b/d였다. 그러나 86년 대비, 1,300b/d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동국은 90년 목표인 40천b/d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기타 공산권 국가들의 87년 생산실적을 보면, 유고 84천b/d, 알바니아 55천b/d, 헝가리 40천b/d, 東獨 10천b/d, 불가리아 6천b/d, 베트남 5천b/d, 폴란드 4천b/d, 체코 2천b/d 등이다.

#### 5. 自由世界 생산실적

자유세계의 총 원유생산 실적은 40.333백만b/d로, 전년 대비 184천b/d가 감소하였다. 非OPEC 자유세계 생산량은 美國과 英國의 감소가 기타 국가의 증가를 상쇄함에 따라 86년보다 0.4%(89천b/d)가 감소한 22.532백만b/d를 기록하였다. 自由世界 石油수요의 증가는 재고방출과 공산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확대로 충족되었다. OPEC 생산량은 최근 수개월동안 거의 2백만b/d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石油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최근 몇 주간 동안은 다시 石油가격이 하락하였다. 선진공업국들은 OPEC의 생산량이 쿼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비축을 증가시켜 왔다.

OPEC의 石油생산량은 회원국들이 지난 87년 하반기에 일어난 과잉생산의 여파를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간 더욱 감소할 것 같다. 그러나 세계 石油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금년말에는 OPEC 석유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OPEC가 87년과 같이 금년에도 생산량을 쿼터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러한 완만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나 여부에 따라 88년도 石油가격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OPEC는 86년에 폭락한 石油가격을 부양시키기 위해 생산쿼터를 고수함으로써 87년 상반기에 생산량을 8.3% 감축시켰다. 86년의 油價붕괴는 OPEC이 시장세어를 되

찾으려고 함에 따라 생산량이 12.6%나 급증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 6. 가격변동

OPEC 原油의 평균 수출가격은 지난해 동 기구의 생산이 절정에 달했던 8월까지 배럴당 17.48달러로 상승하였다. 동시에 非OPEC 原油의 평균가격은 18.40달러였다. 지난해 OPEC 原油의 수출가격은 5월초부터 非OPEC 原油가격을 밀돌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은 통상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OPEC은 작년에 계절적인 수요증가에 대하여 대폭적인 증산으로 대응하였다. 하반기에 OPEC은 생산쿼터를 4백만b/d나 초과 생산하였다. 그로 인해 石油가격을 유지하려는 동 기구 최선의 노력이 와해되었다.

지난 12월에 OPEC 原油의 평균 수출가격은 배럴당 16.65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반면에 非OPEC원유의 평균 수출가격은 16.13달러로 하락하였다. OPEC는 다시 시장세어를 상실하기 시작하여, 86년 32.3%에서 87년 31.8%로 낮아졌다. OPEC의 감소분을 공산권이 흡수하여, 공산권의 비중은 86년 27.5%에서 87년 27.9%로 높아졌다. 세계 石油생산 중 자유세계 非OPEC의 비중은 겨우 0.1% 포인트가 증가한 40.3%를 기록하였다.

OPEC/非OPEC 가격차이는 OPEC산유국들이 구매자들과 공식판매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함에 따라 계속 좁혀지고 있다. 최근 OPEC의 가격할인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확대되어 왔다. 지난 2월 OPEC 原油의 평균가격은 15.46달러로 하락하였으며, 非OPEC 원유는 15.17달러로 낮아졌다.

非 OPEC原油 가격이 OPEC원유가격을 추월하기 시작함에 따라 OPEC石油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세제주에 OPEC 原油의 평균 수출가격은 14.25달러로 하락하였고, 비OPEC 원유가격은 14.51달러로 하락하였다.

IEA는 88년 OPEC 原油생산이 평균 18.8백만b/d가 될 것이며, 상반기 17.7백만b/d에서 동년 4/4분기에는 20.2백만b/d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Purvin & Gertz社는 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 전망에 의하면 88년 OPEC 생산량은 18.7백만b/d

## 세계原油 및 가스생산 실적

	생산량(천B/D)		증감율 (%)	가 스 누 적 생산량(1987)
	1987	1986		
美 國	8,311	8,680	-4.3	17,107.0
캐 나 다	1,519	1,470	3.3	3,472.7
아 르 헨 티 나	426	434	-1.8	659.6
볼 리 비 아	19	18	5.6	98.2
브 라 질	566	572	-1.0	203.4
칠 레	28	31	-9.7	70.8
콜 럼 비 아	385	305	26.2	180.4
에 파 도 르	174	292	-40.4	2.3
과 테 말 라	4	5	-20.0	0.6
멕시코	2,540	2,428	4.6	1,277.4
케 루	164	178	-7.9	46.0
트리 니 다 드	157	167	-6.0	135.5
베 네 수 엘 라	1,586	1,642	-3.4	680.3
中 南 美	6,049	6,072	-0.4	3,354.5
서 반 구	15,879	16,222	-2.1	23,934.2
오 스트 리 아	21	22	-4.5	41.1
텐 마 크	93	73	27.4	85.7
프 랑 스	64	59	8.5	136.8
西 獨	74	79	-6.3	658.9
그 리 스	23	25	-8.0	3.6
이 탈 리 아	58	49	18.4	697.2
네 덜 란 드	90	92	-2.2	2,731.2
노 르 웨 이	999	847	17.9	994.1
스 케 인	32	37	-13.5	26.0
터 키	51	47	8.5	14.0
英 國	2,448	2,540	-3.6	1,655.3
西 歐	3,953	3,870	2.1	7,043.9
알 제 리	649	623	4.2	1,471.6
앙 골 라	359	282	27.3	6.6
카 메 룬	174	177	-1.7	-
콩 고	120	119	0.8	-
이 집 트	899	813	10.6	195.2
가 봉	156	159	-1.9	2.4
가 나	0	0	-	-
아이보리코스트	17	20	-15.0	-
리 비 아	1,090	1,031	5.7	235.2
모 로 코	0	1	-100.0	2.1
나 이 지 리 아	1,242	1,465	-15.2	98.8
튀 니 지	104	107	-2.8	13.8
차 이 레	31	31	-	-
아 프 리 카	4,841	4,828	0.3	2,025.7

	생산량(천B/D)		증감율 (%)	가 스 누 적 생산량(1987)
	1987	1986		
바 레 인	42	44	-4.5	175.8
이 란	2,309	1,848	24.9	670.7
이 라 크	2,170	1,690	28.4	59.9
이 스 라 엘	1	1	-	2.1
쿠 웨 이 트	1,122	1,244	-9.8	156.1
중 립 지 대	387	343	12.8	-
오 만	557	542	2.8	62.4
카 타 르	282	332	-15.1	164.4
사우디아라비아	4,027	4,837	-16.7	740.9
시 리 아	232	194	19.6	16.8
아랍에미리트	1,421	1,330	6.8	575.0
中 東	12,550	12,405	1.2	2,624.1
아프카니스탄	-	-	-	100.1
濠 州	550	513	7.2	532.8
브 루 네 이	139	167	-16.8	283.6
버 마	19	24	-20.8	31.7
印 度	609	621	-1.9	269.1
인도네시아	1,186	1,238	-4.2	1,234.8
日 本	12	13	-7.7	77.1
말 레 이 지 아	485	503	-3.6	460.9
뉴 질 랜 드	28	29	-3.4	189.7
파 키 스 탄	42	41	2.4	419.8
필 리 핀	6	6	-	-
台 灣	2	2	-	35.7
泰 國	32	35	-8.6	162.3
아시아·태평양	3,110	3,192	-2.6	3,797.6
동 반 구	24,454	24,295	0.7	15,491.3
자 유 세 계	40,333	40,517	-0.5	39,425.5
中 共	2,700	2,620	3.1	723.9
루 마 니 아	215	220	-2.3	1,267.8
소 련	12,480	12,300	1.5	25,673.8
기 타	226	207	9.2	1,077.0
공 산 권	15,621	15,347	1.8	28,742.5
세 계	55,954	55,864	0.2	68,168.4
O P E C	17,801	18,074	-1.5	6,092.4
北 海	3,595	3,518	2.2	2,735.1

(資料) OGI

에 달할 것이며, 금년 상반기에 평균 17.25백만b/d에서 4/4분기에는 18.7백만b/d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7. 非OPEC의 생산량

石油가격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非OPEC 생산량의 계속적인 증가는 시장세어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OPEC의 노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 자유세계 석유생산량 중 非OPEC의 비중은 86년 55.4%에서 87년 55.9%로 약간 상승하였다. 자유세계 非OPEC 국가들의 생산실적은 86년 22.443백만b/d에서 87년의 22.532백만b/d로 증가하였다.

非OPEC 생산량은 美國과 英國의 대폭적인 생산감소가 없었다면, 더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생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로는 노르웨이, 멕시코, 이집트, 콜롬비아, 앙골라, 캐나다, 시리아 및 호주 등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美國과 英國의 石油생산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석유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87년에 생산량이 증가한 노르웨이, 오만, 이집트 및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최근 수개월간 생산억제에 명목적인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금년 초 이후 OPEC의 가격협인이 확실히 따라 그러한 지원은 약화되고 있다.

북에멘과 남에멘과 같은 많은 국가들은 상당한 신규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石油수출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IEA는 88년 非OPEC 석유생산량은 87년과 비슷한 28.7백만b/d로 전망하고 있다.

## 8. OPEC의 생산실적

87년 OPEC의 생산수준에 따르면, OPEC은 지금까지 두번째로 가장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85년으로 OPEC의 생산량이 16.039백만b/d로 하락함에 따라 세계 총 생산량의 29.9%, 자유세계 생산량의 41.4%를 차지하였다.

OPEC은 87년 1/4분기에 겨우 15.679백만b/d를 생산한데 이어 하반기에 대폭으로 증산하지 않았더라면, 생산량이 다시 8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을지도 모른다. IEA는 87년 OPEC의 원유생산이 2/4분기에 16.9백만b/d, 3/4분기에 19.1백만b/d로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11.88백만b/d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OPEC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이란-이라크 전쟁에 기인된 것이다. 이라크는 쿼터제도를 따르지 않고 87년 자

OPEC의 산유 쿼터량(1987)

	1987산유량	산유 쿼터
알 제 리	649	667
에 콰 도 르	174	221
가 봉	156	159
인 도 네 시 아	1,186	1,190
이 란	2,309	2,369
이 라 크	2,170	1,540
쿠 웨 이 트	1,122	-
리 비 아	1,090	996
중 립 지 대	387	-
나 이 지 리 아	1,242	1,301
카 타 르	282	299
사우디아라비아	4,027	4,343
U. A. E.	1,421	948
베 네 수 엘 라	1,586	1,571
합	17,801	16,600

국에 할당된 쿼터보다 평균 960천b/d 초과생산하였다. 동국은 86년보다 28.4% 증산하였다.

비록 이란이 87년 생산 및 선적시설의 피해 때문에 쿼터보다 약간 적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는 24.9%나 증산하였다.

이들 두 국가의 전년대비 증가분을 합치면 941천b/d가 된다.

이밖에 쿼터 위반국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87년 말경에는 1.8백만b/d로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로써 쿼터보다 800천b/d 이상을 초과하였다. 87년 전체적으로는 452천b/d를 초과 생산하였다. 리비아도 쿼터를 초과하였다.

87년에 산유량이 감소한 국가는 사우디,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카타르, 가봉 등이며, 이들의 감소분이 기타 증산국의 증가분을 일부 상쇄하였다.

87년 하반기 石油가격의 약세는 OPEC이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못함도 기인한 것이다. OPEC은 지난 상반기 가격상승과 지난 여름의 계절적인 비축확대에 대하여 급격한 증산으로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석유가격을 하락시켰다.

OPEC은 87년 하반기에 쿼터량은 16.6백만b/d였는데 반해 실제로 19.166백만b/d를 생산하였으며, 8월에는 동

년 최고 수준인 20.525백만b/d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약세로 구매자들은 공식가격의 OPEC 원유를 기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산량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생산량이 18.35백만b/d로 떨어졌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88년 1월 OPEC의 생산실적을 17.4백만b/d로 사우디의 생산량은 4.2백만b/d, 아랍에미리트의 생산량은 1.1백만b/d로 추정하였다. 지난 2월에는 계속적인 가격할인으로 인해 OPEC의 산유량이 약간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자체의 징후가 보여 곧 시장이 안정될지도 모른다. 이라크는 지난 12월보다 200천b/d가 감소한 약 2.3백만b/d를 생산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주요생산자인 두바이는 생산자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아부다비는 300천b/d로 산유량을 감축하였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중립지대 생산량을 작년 12월 수준보다 약 106천b/d 적은 300천b/d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중립지대는 OPEC의 쿼터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동 지역생산량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50대50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페르시아灣 지역의 원유공급 과잉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9. 需 要

지난해 자유세계의 석유제품 수요증가는 기대했던 것만큼 原油생산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IEA는 87년 자유세계의 石油소비를 48.6백만b/d로 보고 있으며, 이는 86년보다 800천b/d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87년 비축방출이 평균 600천b/d로 증가되었고 공산권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이 전년대비 200천b/d

증가하여, 2백만b/d로 확대되었다.

87년 美國의 총 비축량을 보면, 전략비축(SPR)이 29백만배럴 증가하였으나, 순증가량은 15백만배럴이었다. 민간 비축이 석유회사들의 과잉분을 계속 방출하여 14백만배럴이나 감소한 때문이다.

87년에 石油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北美로, 전년보다 400천b/d가 증가하여 18.4백만b/d를 기록하였다. 美國은 총 증가분 중 275천b/d를 차지하여 총 수요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6.556백만b/d에 달하였다.

## 10. 展 望

IEA의 전망에 의하면, 88년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49.2백만b/d로, 87년보다 600천b/d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되지만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다.

NGL, 공산권으로부터의 수입 및 정제증분을 포함한 非OPEC석유의 총 공급량은 약 28.7백만b/d가 될 것으로 IEA는 추정하고 있다. 금년 말 비축수준이 87년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가정하면, OPEC 原油수요는 평균 18.8백만b/d가 될 것이다.

비축방출이 예상보다 많으면, OPEC 原油수요는 18.3~18.8백만b/d 수준이 될 수도 있다. 하반기에 계절적인 수요 증가로 OPEC 原油수요가 19.2~19.7백만b/d 수준으로 증가하면, 石油가격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

Purvin & Gertz社는 88년 1/4분기 OPEC의 생산량을 평균 17.3백만b/d로 보고, 비축이 상당히 증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87년 4/4분기에 비해, 88년 1/4분기 中東산유량은 1.3백만b/d이상, 기타 OPEC지역은 350천b/d가 감소할 것으로 동사는 예측하고 있다. □ <OGJ, 88. 3. 14>

□ 石油圖書案内 □

石油 및 石油産業의 入門書

石油의 基礎知識